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 건너 ㉠ 공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재님께 아는 체로 ㉡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발복(當代發福) 예 아니면 괴란처가 여기로다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 처자식을 홀어 놓고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뜬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재상가에 ㉣ 청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남의 고을 결태 하다 혼금(閹禁)에 쫓겨 오기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가대\* 홍정 구문 먹기 ㉤ 핀잔 듣고 자빠지고  
 불의행실(不義行實) 찌그령이 위조문서 비리호송(非理好訟)  
 부자나 후려 볼까 ㉥ 감언이설 피어 보자  
 언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광이라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에 뚜쟁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 어린 딸이 백 냥짜리 되었구나  
 대중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볼까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 작자 미상, 「우부가」 -

\* 선채(先綵):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 가대(家垓):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  
 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짝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가을건이할 무렵 파산(坡山)의 들판에 가 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뻣뻣하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잘  
 가꾸어져 뻣뻣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한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일 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六經)과 온갖 사서(史書)를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한 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하고, 두 번에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아홉 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오.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 성현, 「타농설」 -